

나에게 창의성은 안 먹고는
살 수 없는 약과 같다.

세실 B. 드밀



나에게 창의성은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약과 같다.

나에게 창의성은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약과 같다.

나에게 창의성은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약과 같다.

나에게 창의성은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약과 같다.

나에게 창의성은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약과 같다.

나에게 창의성은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약과 같다.